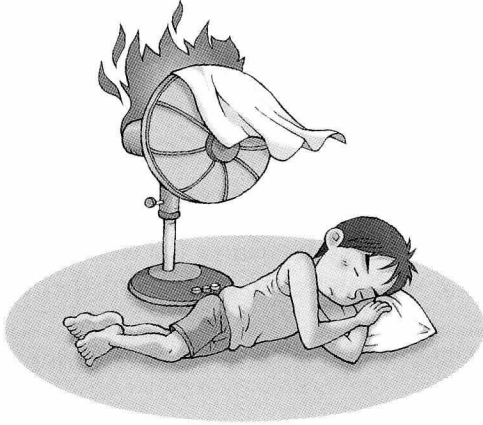


#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하세요



매년 여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5대 사고 유형은 ▲선풍기, 에어컨 질식사고 ▲자동차안 어린이 질식사고 ▲자동차안 폭발사고 ▲에어컨 폭발사고 ▲가정내 위생 안전사고이다.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.

## 선풍기, 에어컨 질식 및 폭발사고 ■■■

- 에어컨은 잠들기 전에 가동시간을 정해두거나 때때로 환기한다.
-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잘 때는 반드시 ① 타이머로 조절하거나 ② 회전시키거나 ③ 벽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④ 방문을 열어둔다.
- 보관하던 에어컨을 다시 가동할 때는 직접 분해하거나 충전하지 말고 전문업체에 가스 충전상태, 누출 여부 등을 점검받는다.
- 에어컨,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① 내부 필터와 먼지 청소 ② 외출시 전원플러그 뽑기 ③ 선풍기 안전망 사용 ④ 선풍기 모터 공기 통풍구에 밀폐 방지(빨래 널기 금지) 등을 한다.

## 자동차 안 질식사고 ■■■

-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절대로 어린이 혼자만 자동차 안에 두어서는 안된다.
- 덥다고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자서는 안된다.
- 자동차안의 온도가 50℃ 이상 올라가면 어린이는 순식간에 질식사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어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. 이럴 경우 재빨리 찬물로 열을 발산시켜 뇌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한다.

## 자동차 안 폭발사고 ■■■

- 평상시 자동차 배선 상태, 연료계통 등을 항상 점검한다.

- 자동차 안에는 폭발할 수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, 부탄가스, 스프레이 등을 두지 않는다.
- 차안에 먹다 남은 주스류를 놓지 않는다.

## 가정내 위생 안전사고 ■■■

- 행주, 수세미는 매일 삶아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, 물에 희석시킨 표백제에 담갔다 뜨거운 물에 행귀 사용한다.
- 갈, 도마는 생육용·생선용·야채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을 잘 씻는다.
- 냉장고를 맹신하지 말고, 먹다 남은 냉장고 음식은 버리며, 음식은 냉장고 내부에 약 60%만 채운다.
  - 곰팡이 핀 음식을 아낀다고 곰팡이핀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행위는 아주 위험하다.
  -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실온보다는 냉장실, 전자레인지 사용한다.
- 고기, 생선, 야채 등 신선식품은 산지에서부터 미생물이나 해충 등에 오염될 수 있고, 포장된 식품의 외부는 산지나 유통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니, 깨끗이 씻어 보관한다.
- 어패류는 가급적 구입한 날 바로 먹고, 그렇지 못할 때는 수분을 잘 제거해 랩으로 싸서 냉동 보관한다.

